

(BTS 데뷔일) (옛 투 컴)

13일 타이틀곡 공개...아미 4000명과 만난다

가족사진·미공개 콘텐츠 등 공개 방송출연 늘려 팬과 스킨십 강화
앤솔로지 앨범 '프루프' 10일 오픈
'유튜브 쇼츠'에서 챌린지도 진행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년 여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데뷔일인 13일을 기념하는 '2022 BTS 페스타(FESTA)', 유튜브 챌린지, 2년 만의 국내 방송 출연 등 국내 팬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선다. 특히 가요계 안팎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 시장까지 뒤흔들며 케이(K)팝의 역사를 쓴 이들이기에 새 앨범을 통해 만들어갈 신기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까지 'BTS 주간'...아미 4000명과 만나
방탄소년단은 10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내놓는다. 2013년 데뷔 후 9년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앤솔로지(선집) 앨범이다. 이들이 실물, CD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7월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등이 수록된 싱글 CD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앨범은 데뷔 10년 차에 접어든 방탄소년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눠 총 3장의 CD로 구성했다. 타이틀곡인 '옛 투 컴'(Yet To Come), '달려라 방탄', '포 유스'(For Youth) 등 신곡 3곡을 포함해 총 48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발매에 앞서 7일부터 데뷔 일인 13일까지 '2022 BTS 페스타(FESTA)'를 진행 중이다. 가족사진을 시작으로 연습실 안무 영상,

프로필 컬렉션, '찐 방탄회식'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7일 KBS 2TV '뮤직뱅크', 19일 SBS '인기가요' 등에서 신곡을 선보인다. 국내 음악방송 출연은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MBC '쇼! 음악중심'은 출연하지 않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MBC와의 불화설이 202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당시 방탄소년단이 2019년 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미국 신년 전야 특별 무대에 썼고 MBC '가요대제전'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앞서 데뷔 일인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타이틀곡을 처음 공개하고 팬들에게 새 앨범도 직접 소개한다.

같은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전 녹

화로 진행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아미'(팬덤) 4000명과 만난다. 빅히트뮤직은 7일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아미만의 특별한 날(데뷔일) 진행되는 녹화로 더 많은 아미와 함께하기 위해 규모와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쇼츠'에서 '#MyBTStory 챌린지'도 진행한다. 챌린지는 전 세계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챌린지다.

전 세계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작 '버터'는 발매 일주일 만에 197만 장 판매고를 올리며 지난해 발매된 앨범 가운데 초동 판매량 기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두 집 살림'하는 서인국

14일 새 앨범 발매...5년 만에 가수 복귀
K2 드라마 '미남당' 선 코믹매력 선보여



서인국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무대와 안방극장을 동시에 정조준한다. 14일 새 앨범 '러브 앤 러브'(LOVE&LOVE)를 발매한 후 27일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러브 앤 러브'에는 사랑 안에 내포된 다양한 감정을 앨범에 담았다. 그는 2017년 3월 싱글 '함께 걸어' 이후 5년 만에 가수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앨범 전반에 직접 참여했다. 디지털 싱글이 아닌 실물 앨범 형태로 발매하는 것도 그의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2009년 엠넷 '슈퍼스타K' 시즌1에서 우승하며 가수로 데뷔했지만, 2012년 이후 연기 활동에 집중하면서 배우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드라마 OST곡을 가창하고, 틈틈이 곡 작업을 하는 등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음반 전문 레이블인 아에르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수 활동의 기반도 새롭게 마련했다.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도 켜지고 있다. 7일 오후 음반 판매사이트 신나라레코드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음악 방송 등에는 따로 출연하지 않지만, 17일 음반 발매 기념 사인회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최근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된 만큼 이후에도 팬들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송한 tvN '어느 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이후 1년 만에 내놓는 '미남당'을 통해서도 독특한 캐릭터에 도전한다. 프로파일러 출신의 가짜 박수무당 역을 맡고 코믹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력한 형사 오연서와 각종 사건을 해결하며 로맨스를 쌓아간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음주운전 도주 MC딩동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허용운·43)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열린다. 그는 2월 17일 밤 9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 빌보드 '인디 파워 플레이어스'에 선정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

이성수·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공동대표가 7일(한국시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2022 인디 파워 플레이어스'(2022 Indie Power Players)에 선정됐다.

'인디 파워 플레이어스'는 빌보드가 2017년부터 매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이뤄낸 레이블 및 유통사의 리더를 발표하는 리스트다. 미국 3대 메이저 레이블로 불리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그룹은 제외된다. 빌보드는 NCT, 에스파 등 SM 소속 아이돌 그룹들이 올해 해외에서 거둔 각종 성과를 함께 소개했다.

넷플 드라마 '지우학' 시즌2 제작 확정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 7일 넷플릭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즌1의 출연 배우인 박지후, 윤찬영, 조이현, 로몬이 시즌2 제작 소식을 직접 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시즌 1에 이어 이재규 감독과 김남수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고, 극본은 시즌1의 천성일 작가가 쓴다. 고등학교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는 올해 1월 공개해 넷플릭스 내 역대 비영어 시리즈 흥행 순위 4위에 올랐다. 올해 말 촬영에 돌입하며 공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Mon June 13 2022

9 PM(KST) | 8 AM(ET)

그룹 방탄소년단이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새 앨범 '프루프'의 신곡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마블 히어로, 새 화두는 '다양성'

여성·인종·종교·성 정체성 등 부각
장벽 허무는 다양한 슈퍼영웅 등장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슈퍼 히어로 이야기의 세계를 구축해온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마블)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성 캐릭터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가 하면 다양한 인종, 종교, 성 정체성을 가진 슈퍼 히어로를 연이어 등장시켜 눈길을 끈다.

●모든 장벽을 깨부수다

마블은 무슬림 슈퍼 히어로를 그린 드라마 '미즈마블'을 8일부터 6주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에서 공개한

다. 파키스탄계 캐나다 배우 이만 벨라니가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소녀 카밀라 칸을 연기한다.

마블은 앞서 올해 5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이터널스'를 통해 성 소수자 슈퍼 히어로 캐릭터인 아메리칸 차베즈와 파스토스를 선보였다. 또 2018년에는 주연인 고 채드와 보즈먼을 비롯한 대부분 배우와 스태프가 흑인으로 구성된 '블랙 팬서'를 성공시켰다. 이어 지난해에는 동양인 배우와 스태프가 주축인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공개했다. '이터널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길가메시 캐릭터를 동양인으로 설정, 마동석이 연기했다.

장애를 가진 슈퍼 히어로도 적극 합류했다. 청각장애 마카리가 활약한 '이터널스'



파키스탄계 캐나다 배우 이만 벨라니(가운데)가 주연하는 '미즈마블'이 8일부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에서 공개된다.

사진제공 | 디즈니+

의 뒤를 따라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는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문나이트'를 3월 6부작 드라마로 소개했다.

●여성 슈퍼 히어로 확대

마블이 지금까지 선보인 28편의 장편영화 중 여성 슈퍼 히어로로 단독 주연으로 내세운 솔로무비는 '캡틴 마블'과 '블랙 위도우', 단 두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디즈니+를 통해 다채로운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새로운 여성 캐릭터인 케이트 비숍을 내세운 '호크아이'에 이어 여성 헬크를 내세우는 '변호사 쉬헵', 아이언맨이 남긴 유산을 이어갈 젊은 흑인 여성 슈퍼 히어로를 그리는 '아이언하트'를 공개한다. 제작을 확정된 드라마 '에코'와 '에거사'도 여성 원톱 슈퍼 히어로물이다.

이와 함께 마블의 케빈 파이키 COO(최고콘텐츠책임자)는 "여성감독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공표했다. 내년 '더 마블스'의 흑인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이터널스'의 클로이 자오 감독과 '블랙 위도우'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